

지역 매아리



부안농협, 발작물 재배농가 퇴비 무상지원 소득 증대 앞장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동진 노을 감자 작목반에 감자박스 무상지원을 비롯하여 보리수매용 톨백 등을 무상으로 지원 농업인의 능가소득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농협은 지난 28일 부안 농협 2층 회의실에서 발작물 재배농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전달식을 가졌다.

부안농협은 관내 부안, 동진, 백산, 주산농협의 발작물 재배농가 90명에 1등급 퇴비 4,700포 1천8백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까지 수도와 중심의 지원을 하였으나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발작물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과 능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년의 숨겨진 동진 노을 감자 작목반에 감자박스 무상지원, 보리수매용 톨백 무상지원 등 농업인이 필요한 자재를 적극 지원해 왔다.

김원철 조합장은 "여기 참석하신 조합원님들이 선도농민으로 앞장서서 농업을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농협도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 잘사는 조합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 맞춤형 탄력순찰 '호평'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 역전파출소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탄력순찰을 펼쳐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빈집탈이, 농기계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보이소피싱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통장들과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역주민 김모씨는 "파출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관내를 구석구석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도 살피고 맞춤형 홍보활동을 해주셔서 믿음이 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성치안 활동을 당부했다.

이강욱 소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 등 공감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체감안전도 향상은 물론 더욱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문화 통한 도시성장·발전 도모

정읍시, 5년간 37억 5000만원 투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정읍시가 '문화도시 정읍'에 걸맞은 기반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올해부터 5년 간 매년 국비 15억원과 도비 8억7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시는 여기에 시비 15억7500만원을 더한 총 37억5000만원을 들여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정읍 만들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정읍시민의 문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백제가요 정읍사 등의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고유 브랜드로 발전시켜 정읍을 지역 고유의 특성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28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위는 문화예술 전문가와 교수,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추진위에서는 사업추진 방향과 지역단체 참여 방안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의견을 나누고 효율적인 방안 등을 모색했다.

추진위원들은 "시민의 의견 반영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문화기획자와 지역문화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추진위 중 7인을 실무위원으로 구성, 주기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추진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세계스캠버리 성공으로 이끄는 밀바탕 마련

스카우트인 부안방문의 해 운영 기관 업무협약



부안군은 스카우트인 부안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부안군 관내 시설 할인 및 스카우트인 환대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관련 기관 업무협약이 27일 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 자리에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권구연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송정철 한국외국인관광협회 전북도지회 부안군지부장, 안병관 공소조

감합회회장, 남정수 부안상설시장장 인회회장, 한병석 내소사 주지스님, 문동호 개암사 주지스님, 김동석 부안군 개인택시단위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7일 부안군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간에 체결된 스카우트인 부안방문의 해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기관들이

스카우트 인들에 대한 할인과 환대서비스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 스카우트인들의 부안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 시설 부안군민 수준 할인 스카우트인 할인업체 표찰 부착 관내 식당 및 부안 상설시장·공소조갈 할인, 내 소사 및 개암사 템플스테이 할인, 제7회 세계스카우트캠버리 홍보 환대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부안군과 각 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스카우트인들이 부안을 많이 찾아 제7회 세계스카우트캠버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밀바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스카우트인들이 부안을 찾아 캠버리를 성공적으로 이끌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K-water가 '고창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개소하며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388억원을 투입해 물관리 전문가인 K-water에 사업을 위탁해 고창군 일원의 노

후 상수도관 정비, 누수탐사와 블록시스템 및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는 2019년까지 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2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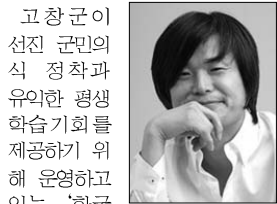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비용과 수도를 원가비용이 크게 절감돼 시설개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박우정 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수적으로 제기되어 온 물 부족과 수질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표현의 자유를 말하다' 고창군, 시사N 주진우 기자 초청 강연



내달 2일 고창 문화의전당

고창군이 선진 군민의 식 정착과 유익한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의 분향, 명품교양강좌'에 시사주간지 '시사N' 주진우 기자 초청 강연을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4월 2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되며, 고창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진우는 이날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표현의 자유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그동안 기자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취재한 다양한 이야기를 고창군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주진우 기사는 고창군 상하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시사N 기자이며 제49회 한국기자상 제8회 미디어 공성포럼 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악마기자 정의 사제', '주기자의 사법혁명', '나는 꿈수다' 등이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속 가능 경제림 조성 박차

숲 가꾸기 12억원·조림사업 10억원 투입

정읍시가 산림 자원 조성과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량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는데 1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재원으로 870ha의 산림에 대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조림지 가꾸기, 어린 나무와 큰 나무 가꾸기 등이 주요 사업이다.

시는 또 조림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림과 공한지 등 모두 140ha이다. 이와 관련 시는 봄철에는 목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림(70ha)과 산

림 재해 방지 등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큰 나무 조림(15ha)과 함께 사계절 관광 자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구절초 테마공원 주변 지역 특화림(15ha)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가을에도 4억원을 들여 총 40ha에 6만8000여 본을 심을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 관광명소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구절초 테마공원 주변에는 산수유 등 화려한 꽃나무를 심고 가꾸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봄 계절에 맞는 시골 마을 관광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림과 공한지 등 모두 140ha이다. 이와 관련 시는 봄철에는 목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림(70ha)과 산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헤어리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헤어리프교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친인척)들이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보호자 자신과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치매와 돌봄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관련 영상을 상영한다. 또 돌봄 사례 공유 시간과 함께 아로마테라피, 심리상담 등을 진행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종료 후에도 월 1회 치매 가족 모임을 갖고 치매환자 가족들 간 치매관련 정보와 돌봄 경험을 서로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details about various gift se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